

부 록

■ 포제단

1. 포제 축문과 해설자료
2. 포제 홀기 및 해설자료
3. 포제 진설도
4. 포제 제물 목록



■ 醕祭壇



▲ 수산1리 포제단



▲ 수산2리 포제단

1. 醴祭 祝文과 해설자료¹⁾

■ 醴祭祝文(2021년, 辛丑, 正醴祭)

維歲次辛丑正月辛卯朔初七日丁酉

幼學康鉉健敢昭告于

醴神之靈伏以

於赫明靈 鎮此一域 司我民物 護我稼穡
優澤攸洽 莫非恩德 歲首初旬 若時昭事
歲功虔誠 祭需雖薄 庶將誠意 夙夜齋沐
心香一炷 萬口攸祝 神其昭臨 靈乃下燭
鄉民陰鷺 永錫天祿 屏却疾病 禍厄捲席
天災防遏 百農豐登 畜瘟防疫 財進幅澤
家家滿庫 富厥潤渥 老幼康寧 壯丁活躍
車輛運行 無事安寧 人才登用 棟梁之材
客地鄉民 所願成就 三災八難 空港反對
鄉里發展 住民結束 文化振興 鎮城保存
產業發展 蕃其六畜 俾我一鄉 均蒙嘉澤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尙饗

醴神之靈位

1) 醴祭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와 내용은 오인홍 수산1리 개발위원장의 도움을 받았다.



■ 酺祭祝文 해설

유세차 신축정월신묘삭초칠일정유 유학 〇〇〇 감소고우
維歲次²⁾辛丑正月辛卯朔初七日丁酉 幼學³⁾ 〇〇〇 敢昭告于

정유년 새해 첫날에 삼가 아뢰입니다.

포신지령 복이
酺神之靈⁴⁾ 伏以

신이시여

어혁명령 진차일역 사아민물 호아가색
於赫明靈 鎮此一域 司我民物 護我稼穡⁵⁾

마을을 진정시키시고, 곡식농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신령하심이 밝게
빛나십니다.

우택유흠 막비은덕
優澤攸洽 莫非恩德

넉넉하고 물이 맑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덕을 아니 입은 것이 없기에

세수초순⁶⁾ 若時昭事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날을 정하여

세공진성 제수수박 서장성의 숙야제목
歲功虔誠 祭需雖薄 庶將誠意 夙夜齋沐

정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주민들이 성의를 다하고

심향일주 만구유축 신기소림 영내하축
心香一炷 萬口攸祝 神其昭臨 靈乃下燭

향을 피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촛불을 밝혀 신령님이 부디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곳에서 기원합니다.

향민음즐 영사천록
鄉民陰騭⁷⁾ 永錫天祿

하늘의 뜻이 이어져서 복을 영원히 하게 하여주시고

병각질병 화액권석
屏却疾病 禍厄捲席

마을에 발생하는 온갖 질병, 재앙과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두어 주시고

2) 유세차(維歲次): 서두(書頭), 유가 제례(儒家祭禮) 축문 형식, 이 해의 차례. 維(유)는 발어사. 제사 祝文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다(이 해의 차례(次例)의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쓰는 문투이다).

3) 유학(幼學): 초헌관의 지위와 자세를 낮추는 의미로 이름 앞에 쓰인다.

4) 포신(酺神): 마을의 제반 일을 관장하고 보호해주는 신. 포제지신(酺祭之神), 농포신(農酺神), 이포신(里酺神)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5) 가색(稼穡): 농사(農事)를 뜻함. 가(稼)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색(穡)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곧, 곡식 농사를 말한다.

6) 세수초순(歲首初旬):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한자 의미로는 새해 들어 열흘 이내를 뜻함)

7) 향민음즐(鄉民陰騭): 음즐(陰騭)은 『書經』에서 나온 말이다. 하늘이 선행 者를 남몰래 돕는다는 뜻이다. <洪範一章>에 유천음즐하민(惟天陰騭下民)이라고 해서 한글에서 陰騭이라는 어휘가 비롯되는데 줄은 <숫말> <오르다> <정하다>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정하다는 의미여서 음즐은 곧 <하늘이 몰래 아래 백성들을 정하다, 즉 돌보다>는 것이 된다.



천 재 방 알 백 농 풍 등
天災防遏 百農豐登

천재지변을 막아내어 모든 농사가 풍년이 되고
축은 방역 재진폭폭
畜瘟防疫 財進幅幅

가축의 전염병을 막아 재산증식이 이루어지고
가가만고 부귀윤약
家家滿庫 富厥潤渥

집집마다 재물이 쌓여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노유강령 장정활약
老幼康寧 壯丁活躍

어른과 아이가 모두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은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차량운행 무사안녕
車輛運行 無事安寧

차량운행과 무사안녕을 위하고
인재등용 동량지재⁸⁾
人才登用 棟梁之材⁸⁾

학식이 뛰어난 인재를 뽑아 나라의 중임을 맡아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객지향민 소원성취
客地鄉民 所願成就

객지에 살고 있는 향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삼재팔난⁹⁾ 공항반대
三災八難⁹⁾ 空港反對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어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향리발전 주민결속 문화진흥 진성보존
鄉里發展 住民結束 文化振興 鎭城保存

주민이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마을발전과 진성보존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산업발전 번기육축¹⁰⁾ 비아일향 군몽가택
產業發展 蕃其六畜¹⁰⁾ 比一良鄉 均蒙嘉澤

모든 가축이 번성하여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우리마을에 더할 나위 없이 골고
루 불평등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기 바랍니다.

근이생폐 예제자성 서품식진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삼가 예법에 따라 여러 제물과 단술과 기장을 가지런히 준비하여
명천상향
明薦尙饗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리니 흠향하시옵소서.

8) 동량지재(棟梁之材): 마룻대와 대들보로 쓸 만한 재목(材木)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중임을 맡을 만한 큰 인재(人材)를 말한다.

9) 삼재팔난(三災八難): 삼재(三災)와 팔난(八難). 곧 모든 재앙(災殃)과 곤란(困難)을 일컫는 말이다.
〈八難: 여덟 가지의 재난. 즉,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 〈三災: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의 세 가지 재앙(災殃)〉. 큰 삼재(三災): 수종(水腫), 심화(心火), 풍병(風病)을 의미한다.

10) 번기육축(蕃其六畜): 소, 말, 돼지, 양, 닭, 개 등의 여섯 가축으로, 원래는 고대 중국의 제사에 쓰이는 희생(犧牲)이었음. 뜻이 바뀌어 가축에 대한 범칭으로 쓰인다.



2. 酺祭笏記 및 해설자료

알자 일헌관 이하 구취문외위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

알자는 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이 문 밖에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시

오. <문외위>라고 복창한다.

알자 인축급 제집사 입취단 남배위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壇南拜位

알자는 축관급 모든 집사를 들어오게 하여 제단 남쪽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사배축이하개사배
四拜祝二下皆四拜

네 번 절합니다. 축이하 모든 제관은 네 번 절하시오.

※ 皆四拜(개사배) 다음 처음 부르는 拜(배)는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 절한다는 의미에서 鞠窮拜(국궁배)를 부르고 다음 삼배(三拜)는 拜(배)만 부르며 興(흥)은 贊者(찬자)가 부른다.
※ (執禮) 국궁배~ 贊者(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예관세위
平身詣盥洗位

몸을 바로 하여 서시오 손 씻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북향립관세각취위
北向立盥帨各就位

북쪽을 향하여 서고 손을 씻고 닦으시오 각자 자기 자리로 나아가시오.

알자 인헌관 입취위
謁者引獻官入就位

알자는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請行事

알자 진헌관 좌백유사근구청행사
謁者進獻官之左白有事謹俱請行事

알자는 헌관 왼쪽으로 나가 유사(행사할 제관)들에게 삼가 행사할 것을 청한다고

아뢰시오. <행사>라고 복창하며 아뢴다.

사배헌관개사배
四拜獻官皆四拜

네 번 절합니다 헌관은 네 번 절하시오.

※ (執禮) 국궁배~ 贊者(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행전폐례
平身行奠幣禮¹⁾

몸을 바로 하여 서시오 폐백을 올리는 예를 하겠습니까.



行奠幣禮

알자인 초헌관에 관세위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알자는 초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북향립진홀관세
北向立搢笏盥帨

북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꿋고 손을 씻고 닦으시오.¹²⁾

집홀인예신위전북향례
執笏引詣神位前北向跪

홀을 잡고 인도받아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으시오.¹³⁾

진홀삼상향헌幣
搢笏三上香獻幣

홀을 꿋고 세 번 향을 불 사르시오. 폐백을 드리시오.

집홀부복흥평신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여 서시오.

인강복위
引降復位

인도받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행작헌례
行爵獻禮

잔 드리는 예를 하겠습니까.

알자인 초헌관에 준소서향립
謁者引初獻官詣樽所西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¹⁴⁾

작주인예신위전북향례
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

잔에 술을 따르시오 인도받아 신위 전으로 나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으시오.

진홀헌작
搢笏獻爵

홀을 꿋고 잔을 드리시오.

집홀부복흥소퇴례
執笏俯伏興少退跪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서 무릎을 꿇으시오.

11) 幣帛(폐백): 제례 때 神에게 정성들여 올리는 흰 모시이다. 우리마을에서는 모시대신 한지를 사용한다.

12) 搢笏(진홀): 제복 앞섶이나 큰 띠에 홀을 꿋는 일

13) 執笏(집홀): 제복 앞섶이나 큰 띠에 홀을 꿋었다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홀(笏)을 가슴위까지 올려 바르게 잡는 일

14) 樽所(준소): 祭酒瓶(제주병)이 있는 자리

讀祝

독 축
讀祝

축문을 읽습니다.

축진신위지우동향궐
祝進神位之右東向跪

축관은 신위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으시오

독 축
讀祝

축문을 읽으시오

부복흥평신
俯伏興平身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여 서시오.

인강복위
引降復位

인도받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 執笏의 올바른 모습

行亞獻禮

행 아헌례
行亞獻禮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알자는 아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북향립진홀관세
北向立搢笏盥帨

북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꽂고 손을 씻고 닦으시오

집홀인예준소서향립
執笏引詣樽所西向立

홀을 잡고 인도받아 준소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작주인예신위전북향궐
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

잔에 술잔을 따르시오 인도받아 신위 전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진홀헌작
搢笏獻爵

홀을 꽂고 잔을 드리시오

집홀부복흥평신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르게 서시오

인강복위
引降復位

인도받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행 종 헌례 行終獻禮

행 종 헌례
行終獻禮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알자인종헌관에관세위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

알자는 종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북향립진홀관세
北向立搯笏盥帨

북쪽을 향하여 서서 홀을 꿇고 손을 씻고 닦으시오.

집홀인에준소서향립
執笏引詣樽所西向立

홀을 잡고 인도받아 준소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작주인에신위전북향계
酌酒引詣神位前北向跪

잔에 술을 따르시오 인도받아 신위전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오.

진홀헌작집홀부북흥평신
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

홀을 꿇고 술잔을 드리시오 홀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여 서시오.

인강복위
引降復位

인도받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음복 飲福

음복수조집사자이작작복주
飲福受胾執事者以爵酌福酒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습니다. 집사자는 잔에 복주를 따르시오.

집사자지조진감신위전조육^{15) 16)}
執事者持俎進減神位前胾肉^{15) 16)}

집사자는 도마를 가지고 신위 전으로 가서 조육을 떼어 놓으시오.

알자인초헌관승에음복위
謁者引初獻官陞詣飲福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 위로 오르시오.

서향계진홀
西向跪搯笏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홀을 꿇으시오

집사자이작수헌관
執事者以爵授獻官

집사자는 헌관에게 잔을 드리시오.

15) 俎(도마 조): 제사 때 희생을 얹는 도구, 도마를 말한다.

16) 胾(제 지낸 고기 조): 祭 지낸 고기, 과거에는 祭가 끝난 뒤 조육(俎肉, 前脚(전각))은 초헌관이 몫으로 分肉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

헌관수작음졸작
獻官授爵飲卒爵

헌관은 술잔을 받아 마시시오.

이작수집사자집사자수허작
以爵授執事者執事者受虛爵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는 빈잔을 받으시오.

집사자이조수헌관헌관수조
執事者以胙授獻官獻官受胙

집사자는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고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이조수집사자집사자수조강자동계출문
以胙受執事者執事者受胙降自東階出門

조육은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는 조육을 받아서 동쪽 계단으로 문을 나가시오.

집흥부복흥평신
執笏俯伏興平身

흉을 잡고 굽어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강복위
引降復位

인도받아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시오.

사배헌관개사배
四拜獻官皆四拜

네 번 절합니다. 헌관 모두는 네 번 절하시오.

※ (執禮) 국궁배~ 贊者(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平身

몸을 바로 하여 서시오.

철변두
撤籩豆

철변두축이진철변두
撤籩豆祝以進撤籩豆

변과 두를 거둡니다. 축관은 나아가 변과 두를 거두시오.

사배헌관개사배
四拜獻官皆四拜

네 번 절합니다. 헌관은 모두 네 번 절하시오.

평신
平身

몸을 바로하여 서시오.

망료
望燎

망료
望燎¹⁷⁾

축문 불사름을 합니다

축입이비치축관(모혈)급폐강자서계에치우감
祝入以篚取祝板(毛血)及幣降自西階詣置于坎

축관은 들어가 폐백 광주리와 모혈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넣으시오.

알자인초헌관예망료위서향립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 위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시오.

축분제문개요
祝焚祭文蓋燎

축과 제문을 불사르시오. 불사른 것을 덮으시오

알자진초헌관지좌백예필수인헌관출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행례가 끝났음을 아뢰는 뜻으로 <예필>¹⁸⁾을 복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알자인축급제집사구복단남배위
謁者引祝及諸執事俱復壇南拜位

알자는 축관급 모든 집사를 제단 남쪽 절하는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오

사배축이하개사배
四拜祝以下皆四拜

네 번 절합니다. 축이하 모두는 네 번 절하시오

※ (執禮) 국궁배~ 贊者(烹)~, 배~ 흥~, 배~ 흥~, 배~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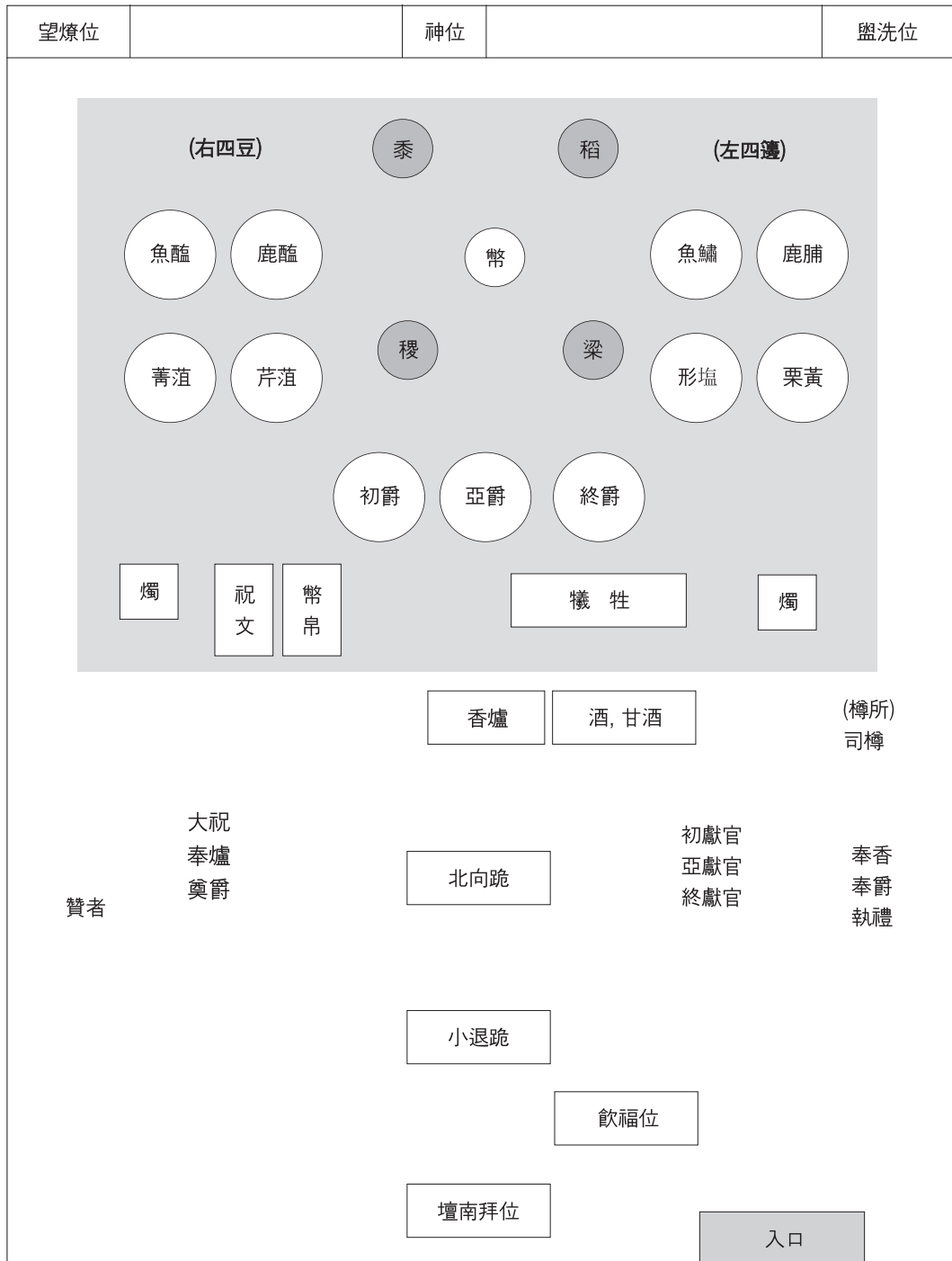
평신이차출
平身以次出

몸을 바로 하고 차례로 나가시오.

17) 望燎(망료): 篚取祝板(毛血) 및 幣를 불사르는 것을 말한다(篚: 대광주리 비). 실제로 대광주리는 없다.
取祝板(毛血)及幣 즉, 축문, 폐백, 지방, 모혈(毛血)을 불사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을 수거해
망료 위치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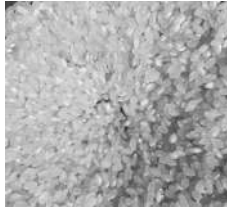
18) 禮畢(예필): 의례를 끝마침

3. 醕祭 陳設圖



4. 醢祭 祭物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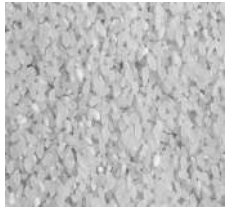
■ 稻米(도미)



- 멍쌀을 말하며, 보통 밥을 짓는 일반미로서 찰쌀에 대응하는 말이다. 메벼에서 나오는 찰기가 적은 벼 즉, 쌀을 의미한다.

· 稻: 벼도

■ 梁米(양미)



- 찰쌀을 말하며 찰기가 있는 즉, 호린쌀을 의미한다.
- 梁: 기장 량

■ 黍米(서미)



- 물명고(物名攷)¹⁹⁾에서 서(黍)는 찰기장을 가리킨다. 즉 호린기장이다. 우리마을에서는 찰좁쌀로 대체하고 있다.

· 黍: 기장서, 기장: 벼과의 한해살이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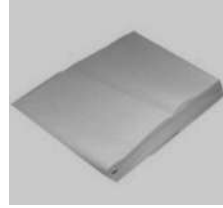
■ 稷米(직미)



- 물명고(物名攷)에서 직(稷)은 메기장을 가리킨다. 즉 모인기장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모인좁쌀로 대체하고 있다.

· 稷: 기장 직

■ 폐백(幣帛)



- 제례 때 神에게 정성 들여 올리는 흰 모시이다.
- 마을 포제 시에는 창호지 등 하얀 종이를 접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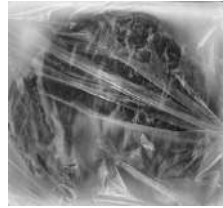
■ 鹿脯(녹포)



- 변(邊)²⁰⁾에 담는 제물 가운데 사슴 고기를 말려서 만든 포(脯)이다. 우리마을에서는 날 소고기를 토막내어 사용한다.

· 脯: 포 포, 저미어 말린고기

■ 鹿醢(녹해)



- 사슴 고기를 소금에 절인 것. 두(豆)²¹⁾에 담는 제물(祭物)의 하나임). 우리마을에서는 날 소고기를 토막내어 사용한다.

· 醢: 젓갈 해

■ 香燭(향촉)



- 신(神), 불(佛)에게 제사나 불공을 드릴 때 피우는 향과 초. 향과 촛불과 촛대를 의미하며 대나무와 한지를 이용해 만들어 사용한다.

19) 물명고(物名攷): 1820년대 유희(柳僖)가 여러 가지의 물명(物名)을 모아 한글 또는 한문으로 풀이하여 만든 일종의 어휘사전서이다.

■ 魚鱸(어숙)



- 말린 생선고기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말린 명태를 사용하고 있다.
- 鱸: 말린고기 숙

■ 魚醢(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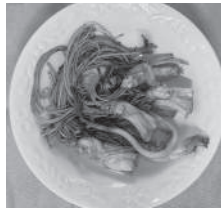
- 생선을 소금에 절인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옥돔을 사용하고 있다.
- 醢: 젓갈 해, 물고기 절임

■ 菁菹(청저)



- 菹: 채소절임 저

■ 芹菹(근저)



절여서 사용한다.

- 제사상(祭祀床)에 놓은 무김치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무를 채 썰기식으로 하여 소금으로 절여서 사용한다.

- 미나리를 주로 하여 담근 김치. 두(豆)에 담은 제물의 하나이다.
- 포제에서는 미나리를 마련하여 소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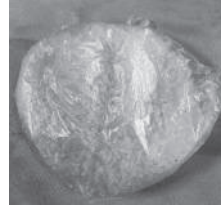
■ 栗黃(율황)



사과, 배, 밀감, 꽃감, 대추, 밤, 비자 등을 준비한다.

- 껍질을 벗긴 밤을 위아래로 납작하게 썰고 가장자리를 칼로 쳐서 깎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률(生栗)이라고도 한다. 보통

■ 形鹽(형염)



- 세종실록 오례(五禮)에서는 形鹽은 소금이 범(虎) 모양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 보통 천일염을 사용한다.

■ 犧牲(희생)



한 후 통돼지로 준비한다.

-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주로 소, 양, 돼지 따위를 바친다.

- 우리마을에서는 암돼

■ 毛血(모혈)



- 종묘와 사직의 제향에 쓰던 짐승의 털과 피. 즉, 희생의 털과 피, 발톱을 준비한다.

20) 변(籩): 제사지낼 때 신위의 왼편에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아 놓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祭器)를 말한다.

21) 두(豆): 두껍고 굽이 높으며 뚜껑이 있어서 고기불이, 국 따위를 담는 데 쓰는 나무로 된 제기(祭器)를 말한다.

도서편찬 추진위원 명단 및 감수위원 (※가나다 순)

【도서편찬 추진위원】

● 자문위원

강수용(노인회장)	강승욱(자영업)	강현건(역대 이장)
고갑권(역대 이장)	고대오(중등 교감)	고대익(자영업)
고문철(보훈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고민호(역대 이장)	고성찬(수협 상임이사)
김문숙(화남상사 대표)	오인수(역대 이장)	오상훈(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오용원(한국문화원 연합회장)	오인홍(자영업)	오찬율(역대 이장)
오홍원(은산전기 대표)	오희범(서귀포시 정방동장)	한덕보(중등 교감)
한만수(중등 교장)		

● 위 원 장

한석중(이학박사, 국립수산물과학원 제주수산물연구소장,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 부위원장

강덕재(제주도 농협본부장)	고관범(성산포수협 상임이사)	고용호(제주도의회 의원)
김문식(수산1리 이장)	오동현(수산2리 이장)	오홍식(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 홍보, 재정위원

고문섭(삼다 이앤지 대표)	고오봉(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윤권(제주도 도시건설국장)
김석범(역대 이장)	오도일(일신전기 대표)	오용범(대왕건설 대표)
한만철(한만철 세무사)		

● 집필위원

김정호(제주은행 지점장)	고경석(기아자동차)	고성일(현대해상 상무)
고영섭(성산읍사무소)	김윤관(자영업)	오대혁(국문학 박사, 문화비평가)
오명철(제주도 감사위원회)	오원혁(삼성화재)	오창현(자영업, 간사)

● 교정위원

강문유(중등 교장)	강봉성(중등 교사)	강희규(해양경찰청)
오영진(미진건설 대표)	오유선(방송 작가)	오윤보(국세청)
오장순(수현서예학원장)	오원일(중등 교사)	

■ 감수위원



【한영희, 수산1리】

■ 주요 경력 △수산1리 이장 역임(37, 38대) △水山里誌 발간 △농촌지도자 남제주군협의회 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명예원장 △남제주군 농어촌특별대책위원 △뉴라운드대책협의회 위원 △農村指導者城山畵會 50年史 도서편찬위원장 △제주도지사상(2회) △농림부장관상(2회) △남제주읍뚝군민상(1차산업)



【양만길, 수산2리】

■ 주요 경력 및 업적산물 판매장 건립 △한국농촌지도자 성산읍회장 △남제주군 4-H 연합회장 △한라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씨름협회 부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201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수상(2018)

改訂増補版 水山里誌

발 행 처 성산읍 수산1·2리 마을회
발 행 일 2021. 12.
기획·편찬 수산초등학교 총동문화 도서관위원회
인 쇠 온누리디앤피 T. 064-722-0086